

#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 『명인(名人)』론\*

-바둑문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김청균\*\*

(e-mail : kgsiga321@hanmail.net)

### 目次

1. 서론
2. 대국 조건과 주요 등장인물의 모델
3. 슈사이 명인과 오타케 7단의 대비(對比)
4. 일본 바둑의 전통과 예도(藝道)
5. 결론

## 1. 서론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명인(名人)』은 1951(쇼와26)년 8월부터 1954(쇼와29)년 5월까지 잡지 『신초(新潮)』와 『세카이(世界)』에 4회에 걸쳐 발표되었다. 그것은 「명인(名人)」(1951년 8월, 『신초』), 「명인 생애(名人生涯)」(1952년 1월, 『세카이』), 「명인 공양(名人供養)」(1952년 5월 『세카이』), 「명인 여향(名人余香)」(1954년 5월, 『세카이』)이라는 분재(分載)의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네편이 하나로 묶여 『명인』이라는 제목으로 『우칭위안 기담(吳淸源棋談)』과 함께 1954년 7월, 분게이슌주신샤(文芸春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2-A00019)

\*\*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HK연구교수

秋新社)가 간행한 『우칭위안 기담(吳淸源棋談)·명인(名人)』에 수록되었다. 슈사이(秀哉) 명인의 은퇴 바둑을 소재로 한 『명인(名人)』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대표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중요 선행연구를 소개하기로 하자. 이 작품에 대하여 야마모토 겐키치(山本健吉)는

가와바타 씨는 유례없는 픽션의 구축을 이 작품에서 의도한 것이다. 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씨는 대국자들의 동작이며 그 장소의 분위기며 갖가지 디테일을 섬세하게 묘사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반상의 흑백의 싸움에 집중하고 봉사하도록 안내했다.<sup>1)</sup>

라고 하여 바둑을 소재로 한 이 작품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하세가와 이즈미(長谷川泉)는 이 작품에 대해 대국자들의 심리에 대하여

문제가 된 오타케 7단의 봉수(封手)<sup>2)</sup>를, 명인이 교활한 작전상의 술수로 오단(誤斷)을 하고, 그 심정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을 유발하게 된 대목에 『명인』의 클라이맥스가 있다.<sup>3)</sup>

고 지적하였으며 오쿠보 다카키(大久保喬樹)는

수십 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서 한 길로 달려온 이 경기의 마지막 승부에 말 그대로 심혈을 기울여 몰두하다가 결국은 패하고, 그대로 빈 껍데기처럼 되어 세상을 떠버리고 만 운명은 참담함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참담함을 대가로, 참담함을 에워싼, 오라(aura)와 같이 비할 바 없는 숭고함이 빛나게 됨을 확인한다.<sup>4)</sup>

고 하였다. 한편, 한자의 사용, 문체에 사용된 가타카나, 후리가나, 접속사 등 주로 문체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명인』을 고찰한 후지이 료테이(藤井了諦)의 유니크한 연구도 있다.<sup>5)</sup>

1) 山本健吉「解説」川端康成『名人』, 新潮文庫, 1962, p.172

(이하, 본고에 인용된 일본어 문헌의 우리말 번역은 모두 본 필자의 번역임)

2) 봉수란, 바둑에서 대국(對局)이 하루에 종결되지 못하고 다른 날까지 계속될 때 종이에 적어 봉해 두는 그 날 대국의 마지막 수를 말한다. 현재는 일본의 3대 기전(棋戰)인 기성전(棋聖戰), 명인전(名人戰), 혼인보전(本因坊戰)의 도전기(挑戰棋)에서 봉수가 적용되고 있다.

3) 長谷川泉「川端文学における『名人』」, 川端文学研究会編『川端康成研究叢書7 鎮魂の哀歌-叙情歌-住吉三部作 名人-』, 教育出版センター, 1980, p.144

4) 大久保喬樹『川端康成-美しい日本の私-』, ミネルヴァ書房, 2004, pp.131-132

5) 藤井了諦「『名人』-作者の狙いと文体-」, 川端文学研究会編著『川端康成の人間と芸術』, 教育出版センター, 1974, pp.126-152

이와 같이 『명인』은 지금까지 그 문학적 장치, 일생일대의 승부 바둑을 둘러싼 대국자들의 심리, 패배 속에 빛나는 승고함이 지적되고 문체론의 관점에서 연구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작품 『명인』이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을 소재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바둑문화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연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현상을 극복하여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명인』을, 바둑문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하여 이 작품에 드러난 일본의 바둑문화에 대하여 고찰하고, 또한 바둑관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적 아름다움을 그려낸 작가로 알려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문학 세계가 소설 『명인』에도 잘 드러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명인』의 저본으로서 1984년의 신초샤(新潮社)판 『가와바타 야스나리 전집 제11권(川端康成全集第十一卷)』<sup>6)</sup>을 사용하였음을 부기해 둔다.

## 2. 대국 조건과 주요 등장인물의 모델

작품 『명인』의 소재가 된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은 1938(쇼와13)년 6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4일까지 두어졌다. 제한시간은 흑(黑)과 백(白) 각 40시간으로, 흑(黑)의 기타니 미노루(木谷実) 7단이 34시간 19분을 소비하였고, 백(白)의 슈사이 명인이 19시간 57분을 소비하였다. 그리고 이 바둑에는 현대 바둑에서 보는 흑번(黒番)에 대한 공제는 없었다.

제한시간의 면에서 말하자면,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은 최근에 개최되는 기전(棋戰)의 제한시간과 비교하여 월등히 긴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일본의 대부분의 현대 기전에서는 흑과 백에 각 3-5시간씩의 제한시간을 두고 있어 하루 내에 바둑의 승부가 나게 되어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스피드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기사(棋士)들의 컨디션 유지를 위한 것이다. 최근의 기전에서 제한시간이 가장 길게 주어지는 것은 일본의 3대 바둑 타이틀전인 기성전(棋聖戰), 명인전(名人戰), 혼인보전(本因坊戰)의 도전기(挑戰棋)의 경우로 이 경우는 제한 시간이 흑과 백 각 8시간으로 대국은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일본의 3대 기전의 도전기의 경우에 제한 시간이 흑과 백 각 8시간으로 주어지는 것은 대국자에게 바둑의 수를 읽을 시간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보다 좋은 내용의 바둑이 나오도록 하려는 기대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에서 흑번(黒番)에 대한 공제가 없었던 것도 현대 바둑과는 구별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기전에서는 흑번에 대하여 6집반의 공제가 행해지고 있다. 바둑은 흑과 백이 한 수 씩 교대로 수를 두어나가게 되며, 먼저 두는 쪽이 유리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바둑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흑번에 대한 공제가 없었다. 그러나, 바둑의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흑번에 대한 공제가 행해지게 되었고 오늘날의 일본 바둑에서는 흑번에 대하여 6집반을 공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에서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은 제한 시간의 면에 있어서도, 흑번 공제가 있어서도 현대 바둑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규칙 하에서 두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은 작품 『명인』의 이해에 긴요하다. 흑, 백 각 40시간이라는 긴 제한시간으로 인해 여러 날에 걸쳐 바둑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이 은퇴 바둑의 관전기자였던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슈사이 명인, 기타니 미노루 7단을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것이 두 인물의 조형(造型)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흑번에 대한 공제가 없었던 것은 기타니 미노루 7단이 선착(先着)의 효과를 살려 침착하고 굳건하게 반면 운영(盤面運營)을 할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작품 『명인』의 주요 등장인물의 모델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거의 대부분 실명 그대로 등장한다. 다만, 유의할 것은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에서 명인의 상대 대국자인 기타니 미노루 7단은 이 작품에서는 오타케(大竹) 7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전기를 썼던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이 작품에서는 우라카미 아키오(浦上秋男)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인』의 소재가 된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관전기로 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에 연재되었다. 이 관전기의 해설을 담당한 것은 우청위안(吳淸源) 6단이었다. 그러므로 『명인』이라는 작품 이해를 위해서는 혼인보(本因坊) 슈사이, 기타니 미노루, 우청위안이라는 세 명의 기사에 대하여 사전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세 기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혼인보 슈사이는 본명이 다무라 야스히사(田村保寿)로 1874(메이지7)년 도쿄에서 출생하였다. 19살 때에 제19세 혼인보 슈에이(秀栄)의 문하에 입문하였고 1908(메이지41)년에 34살로 제21세 혼인보 슈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1914(다이쇼3)년에 명인에 취임한 이래 오랜 기간 일본 바둑계의 1인자로 군림한다. 1938(쇼와13)년 기타니 미노루 7단을 상대로 은퇴 바둑을 두고 거기서 패한 후 바둑계에서 은퇴하며, 1939(쇼와14)년에는 혼인보 명칭을 일본기원(日本棋院)에 양도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40(쇼와15)년 66세로 세상을 떠난다.

6) 川端康成 『名人』 『川端康成全集第十一卷』, 新潮社, 1984

혼인보 슈사이 명인이 일본의 바둑사에서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혼인보라는 명칭이 바둑사에서 갖는 의미를 천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용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의 에도시대(江戸時代)에는 혼인보가(本因坊家), 이노우에가(井上家), 아스이가(安井家), 하야시가(林家)라는 바둑 4대 명문이 존재하였다. 이 중 가장 명성이 드높았던 것은 혼인보가였는데, 혼인보는 바로 그 혼인보가의 계승자에게 붙여진 호칭이었다. 에도시대에 바둑은 도쿠가와막부(徳川幕府)의 보호를 받아 발전하였다. 특히 당대 최고수에게 부여된 명인 자리를 놓고 바둑 4대 명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바둑은 발전하게 되는 바, 혼인보가는 5명의 명인을 배출하여 가장 많은 명인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혼인보는 세습되었는데 그 마지막 혼인보가 바로 제21세 혼인보 슈사이였던 것이다.

소설 『명인』의 소재가 된 혼인보 슈사이의 은퇴 바둑은 바로 마지막 세습 혼인보의 은퇴 바둑이었다. 그리고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이 은퇴 바둑이 두어진 그 이듬해인 1939년 혼인보 슈사이는 혼인보 명칭을 일본기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프로 기전인 혼인보전이 창설되었다. 이후 혼인보는 혼인보전의 우승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다. 현재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에서 개최하는 혼인보전은 일본의 3대 기전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sup>7)</sup>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혼인보 슈사이의 은퇴 바둑은 혼인보가로 대표되는 에도시대 이래의 바둑 질서가 현대 바둑으로 재편되는 시기의 기념비적인 바둑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슈사이 명인은 일본의 전통적 바둑의 대표자이자 다음 시대로 이행되기 이전의 마지막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오타케 7단의 모델이 된 기타니 미노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기타니 미노루(1909-1975)는 스즈키 다메지로(鈴木為次郎) 문하에서 바둑 수업을 하였고, 1924(다이쇼13)년 입단(入段)하였다. 재능있는 신진기사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1933(쇼와8)년에는 우칭위안과 함께 '신포석(新布石)'이라는 기존의 포석이론을 뒤엎는 혁신적인 포석이론을 발표하여 각광을 받았다.

1938(쇼와13)년에는 혼인보 슈사이의 은퇴 바둑의 상대로 결정되어 혼인보 슈사이와 대국한다. 우칭위안과 1933-4(쇼와8-9)년 제1차 10번 승부, 그리고 1939-41(쇼와14-5)년 제2차 10번 승부를 겨루는 등 일본 바둑계의 중심에서 활약하였고, 그가 창안해 낸 정석(定石)도 많다.

또한 많은 제자들을 두어 그 문하에서 오타케 히데오(大竹英雄), 이시다 요시오(石田芳夫), 가토 마사오(加藤正夫), 다케미야 마사키(武宮正樹), 고바야시

고이치(小林光一) 등 일본 바둑계를 제패한 기사들을 배출하였다.<sup>8)</sup> 많은 제자들 중에는 조남철(趙南哲), 김인(金寅), 조치훈(趙治勳)과 같은 한국인 제자도 있었다. 조남철은 기타니 미노루의 초기 제자로 그 문하에서 바둑 수업 후 일본기원(日本棋院)에서 입단하였고 후일 한국에 귀국하여 바둑 보급에 힘썼다. 그는 한국 바둑의 개척자이자 오랫동안 한국 바둑의 1인자였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한국바둑의 1인자가 되었던 것이 김인이다. 또한 조남철의 조카이기도 한 조치훈은 기타니 미노루의 후기 제자로 그 문하에서 수업하고, 일본에서 입단한다. 이후 그는 대삼관(大三冠)<sup>9)</sup> 통산 4회, 혼인보 10연패, 7대 기전 그랜드슬램 달성 등, 일본 바둑계에서 불멸의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볼 때, 기타니 미노루는 한일 양국의 바둑계를 석권한 걸출한 기사들을 양성해 낸 훌륭한 스승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의 관전기에서 해설을 담당할 우칭위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우칭위안(1914-)은 중국의 푸젠성(福建省) 출신으로 1926(다이쇼15)년에 이와모토 가오루(岩本薫) 6단 등이 바둑 홍보 차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와모토 6단에게 3점 접바둑으로 2연승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고 1928(쇼와3)년 도일(渡日)하게 된다. 도일 후 세고에 겐사쿠(瀬越謙作)의 문하에서 바둑 수업을 하였고, 신예 기사로 두각을 나타낸다. 그가 두각을 나타낸 시기는 기타니 미노루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위에서 기타니 미노루에 대하여 소개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1933(쇼와8)년 기타니 미노루와 함께 '신포석'을 발표하였고, 기타니 미노루와 1933-4(쇼와 8-9)년 제1차 10번 승부, 1939-41(쇼와14-5)년 제2차 10번 승부를 겨루었다. 그리고 작품 『명인』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1938(쇼와13)년에는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의 관전기를 해설하였다. 1940-50년대 그의 전성기에는 일본의 정상급 기사들과 10번 승부를 겨루어 승리를 거두어 당대 1인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고, 오늘날에도 '영원한 기성(棋聖)'으로 추앙받고 있다.

### 3. 슈사이 명인과 오타케 7단의 대비(對比)

2장에서는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을 현대 바둑과 비교해 보았을 때의 특

8) 菊池達也 『木谷実とその時代』, 棋苑図書, 1999年, p.17

9) 일본 바둑계의 3대기전인 기성전, 명인전, 혼인보전을 동시에 석권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대삼관을 차지한 기사는 조치훈 이외에는 없으며, 그는 통산 4회나 대삼관을 차지한 전인미답의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7) 참고로 일본의 3대 기전 중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이 개최하는 기성전(棋聖戦)은 1977(쇼와52)년 창설되었고,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이 개최하는 명인전(名人戦)은 1976(쇼와51)년 창설되었다. 이와 같이 혼인보전은 이들 신문기전과 비교하여 훨씬 오랜 개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징을 고찰하였고 동시에 이 바둑이 일본 바둑사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리고 슈사이 명인과 기타니 미노루, 또한 관전기의 해설을 담당한 우칭위안이라는 세 기사의 삶에 대하여 개관해 보았다.

2장에서 보았듯이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은 에도시대의 바둑질서가 현대 바둑으로 재편되는 시기의 대국이었다. 그리고, 슈사이 명인이 에도시대 이래의 바둑질서의 상징적 인물이라면, 기타니 미노루는 바로 현대 바둑의 새로운 바둑질서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은퇴 바둑을 주최한 도쿄니치니치신문과 오사카마이니치신문 측도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을 보기로 하자.

메이지, 다이쇼, 쇼와 3대에 걸쳐 명실상부하게 바둑계의 왕자(王者)로서 50년 불패(不敗)의 기록을 자랑하고 있는 제21세 명인 혼인보 슈사이 씨는 드디어 본사 독점의 '당대의 은퇴 바둑'에 의해서 그 빛나는 '최후의 승부 바둑'을 두고자 도전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차, 1년 만에 걸친 선발 리그전의 결과, 귀재(鬼才) 기타니 미노루 7단이 등장하게 되어 이에 오는 26일부터 바둑계 공전(空前)의 대결전을 개시하게 되었다.<sup>10)</sup>

상기 인용은, 슈사이 명인 은퇴 바둑이 개시되기 이틀 전인 1938년 6월 24일, 도쿄니치니치신문의 「본사 독점 호화 기보 -명인 은퇴 바둑 드디어 개전(本社独占豪華棋譜-名人引退碁愈々開戦)」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로부터의 인용이다. 이 기사에서는 슈사이 명인을 메이지, 다이쇼, 쇼와에 걸친 바둑계의 왕자(王者)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에도시대 이래의 혼인보가의 전통을 이어받아 혼인보의 자리에 오르고 또한 명인에 취임하여 불패의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의 바둑이니만큼 그 은퇴 바둑을 '당대의 은퇴 바둑'이라고 일컫는 것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기타니 미노루를 귀재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젊은 기사의 선두에 있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상기 인용의 기사에서는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이 분명히 바둑계의 구세력과 신세력을 대표하는 인물 간의 바둑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바둑계에서 떠오르는 신세력은 바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미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포석이었다. 그리고 이 신포석은 바둑 애호가들에게 매우 인기 높은 것이었는데 혼인보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에 있어서 세간의 관심도 우선, 흑의 첫수가 신포석으로 시작하는가에 있었다. 『명인』의 제9장에도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다음을 보기로 한다.

신포석인가, 구포석인가, 화점인가, 소목인가, 오타케 7단이 신(新)과 구(舊) 중 어느 쪽의 진을 펼치는가는 천하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흑의 첫 착수는 '3의 4', 구포석의 소목이었다. 이 흑1의 소목으로 이 바둑의 큰 수수께끼는 풀렸다.<sup>11)</sup>

신포석은 1933(쇼와 8)년 여름, 기타니 미노루와 우칭위안이 제시한 새로운 포석 이론으로 귀의 착수의 경계성, 중앙과 변으로의 세력의 발전, 바둑에서의 전투의 유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sup>12)</sup> 기존의 포석은 소목(小目)과 외목(外目)을 위주로 하였는데, 이는 소목과 외목의 조합이 귀의 집차지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신포석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불식하고 화점(花点)과 고목(高目)을 과감하게 두면서 귀를 한 수로 처리하고 변과 중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며 돌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포석이었다.

그러므로 위 인용 부분은 기타니 미노루를 모델로 한 오타케 7단이 신포석을 제창한 인물로 세간에 기억되고 있음과 동시에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이 어디까지나 당시의 바둑계의 신구(新舊) 세력 간의 대결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런데 상기 인용한 대목에서 한 가지 주의를 끄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흑의 첫 착수가 '구포석의 소목'이었다는 점이다. 오타케 7단은 왜 구포석을 들고 나온 것일까? 이 구포석을 들고 나온 데 대하여는 오타케 7단의 모델인 기타니 미노루의 언급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추측할 수밖에 없으나, 아마도 흑이 이 바둑에 임하여 안전한 승리의 길을 도모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타니 미노루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신포석을 창안한 이래, 여러 바둑에서 신포석을 구사해 왔지만, 신포석은 아직도 실험단계에 있다고도 할 수 있었다.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에 임하여서 그는 기존의 구포석으로 판을 짚으면서 포석 단계에서부터 모험을 피하고 확실하고 굳건한 한수 한수를 구사함으로써 반드시 승리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슈사이 명인과 오타케 7단이 각기 일본 바둑의 구세력(舊勢力)과 신세력(新勢力)을 대표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음은 작품의 제31장의 다음 대목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나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의 상대자로서 오타케 7단은 혼자 힘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타케 개인이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시대의 선수로서, 역사의 흐름을 계승하는 대표로서 명인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sup>13)</sup>

11) 川端康成 『名人』, 『川端康成全集』第11卷, 新潮社, 1984, p.467

12) 菊池達也 『木谷実とその時代』, pp.22-24 참조.

13) 川端康成 『名人』, p.543

10) 「本社独占豪華棋譜-名人引退碁愈々開戦」 『東京日日新聞』1938년6월24일

오타케 7단이 명인한테 이긴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다음 명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 은퇴 바둑은 시대의 변환점이고 시대를 넘겨주고 넘겨 받는 것이어서 그 다음은 바둑계에 새로운 활기가 일 것이다.<sup>14)</sup>

위의 인용은 대국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국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을 때 내레이터인 우라카미 아키오가 오타케 7단을 설득하는 대목인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슈사이 명인과 오타케 7단과의 대국은 전장(前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한시간이 흑과 백, 각 40시간씩으로 도저히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는 바둑이 아니었다. 또한 대국자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연일 대국을 계속할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므로 대국일 사이에 나흘의 휴게일을 넣는 조건으로 대국이 진행되었다. 당연히 대국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대국으로 노령인 슈사이 명인은 발병하여 입원하고 만다. 그리고 발병으로 인해 중단된 대국이 명인의 퇴원 후 재개는 되었으나, 이번에는 슈사이 명인 측이 휴게일을 이틀로 단축하자고 요청한다. 대국 조건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연로(年老)한 환자를 상대하는 심적 부담감, 그리고 대국 조건의 변경이라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에 오타케 7단이 대국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대국은 중단되었으나, 결국은 이를 수용한다. 그러나 겨우 타협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대국 재개를 언제 하느냐로 트러블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내레이터인 우라카미 아키오가 오타케 7단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라카미 아키오는 오타케 7단을 ‘다음 시대의 선수’이자 ‘역사의 흐름을 계승하는 대표’라고 하며, 또한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은 ‘시대의 변환점’이라고 한다. 우라카미는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의 바둑이 도래하였음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인』의 내레이터인 우라카미 아키오가 슈사이 명인과 오타케 7단을 각기 일본 바둑의 구세력과 신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또 새로운 시대의 바둑이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특별히 이 흐름을 옹호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이다.

이 작품의 제10장에는 다음과 같이 슈사이 명인과 오타케 7단, 두 기사 대국을 그리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내레이터의 감상이 기술되고 있다.

명인과 오타케 7단과는 대국(對局)의 긴장도 정(靜)과 동(動)으로, 무신경적(無神經的)과 신경적(神經的)으로, 표면은 정반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었다.<sup>15)</sup>

14) 川端康成 『名人』, p.544

7단이 앉았나 싶더니 또 일어나서 나가는 것도 싸움의 체비와 같은 것으로, 명인의 숨결이 거칠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리다. 그러나, 나는 명인의 좁고 둥근 어깨가 물결치는 데에는 감동을 받았다. 괴로운 것 같지도 않고 거센 바람도 아니며 명인 자신조차 모르는, 남은 알 리도 없는 영감이 다가오는 비밀을 나는 엿본 것 같이 느꼈던 것이다.<sup>16)</sup>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이 치러질 당시, 오타케 7단의 모델인 기타니 미노루 7단은 우칭위안 6단과 함께 젊은 기사의 선두에 있었다. 그 젊은 기사의 대국 태도가 동적(動的)이고 신경적(神經的)이라 한다면, 연륜이 쌓인 명인의 대국 태도는 정적(靜的)이고 무신경적(無神經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되는 대국 태도 자체는 세대 간의 특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쪽의 대국 태도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레이터는 명인의 정적(靜的)인 대국 태도에 감동했음을 밝히고 있다. 명인의 어깨가 조용히 물결치는 데에 감동을 받고, 마치 영감이 다가오는 비밀을 엿본 듯하다고 말하는 내레이터는 분명 정적(靜的)이고 무신경적(無神經的)인 대국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일본 바둑의 전통과 예도(藝道)

『명인』에서 슈사이 명인은 전통적인 일본 바둑의 미학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 인물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전통적인 일본 바둑을 바라보는 내레이터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하에서 그 포인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제12장 부분을 보기로 한다.

모두 좀스런 규칙뿐, 예도(藝道)의 아취(雅趣)도 쇠하고, 연장자(長上)에 대한 경모(敬慕)도 잃어가고, 서로의 인격도 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 오늘날의 합리주의에 명인은 생애 최후의 바둑에서 괴로움을 당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바둑의 도(道)에서도 일본 또는 동양 고래의 미풍(美風)은 파손되어 모든 것이 계산과 규칙이다.<sup>17)</sup>

이 부분에 보이는 내레이터의 사고방식은 고래의 일본 또는 동양의 미덕으로서 예도의 아취, 연장자에 대한 경모, 서로 간의 인격의 존중을 들 수 있다

15) 川端康成 『名人』, p.472

16) 川端康成 『名人』, p.472

17) 川端康成 『名人』, p.479

는 것이며, 근대의 합리주의는 그 세계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 부분에서는 바둑의 도(道)는 곧 예도라는 사고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합리주의에 바탕한 현대 바둑은 계산과 규칙이 있을 뿐 예도의 아취와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용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합리주의에 명인은 생애 최후의 바둑에서 피로움을 당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는 표현이다. 여기에는 슈사이 명인이 ‘오늘날의 합리주의’와는 다른 모험을 가지고 사는 인물, ‘예도의 아취’를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 제14장의, 슈사이 명인에 대한 다음의 기술이 또한 주목된다. 그것은

이 명인의 뒷모습에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언가 깊은 느낌이 있었다. 대국장을 막 벗어나서 멍하니 걸어가는 뒷모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조용한 애처로움이었다. 메이지시대 사람의 자취라고도 생각되었다.<sup>18)</sup>

이때의 명인의 뒷모습은 무언가 평형이 잡히지 않은 듯 했다. 즉, 바둑 삼매경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곳곳한 상체는 아직 대국하는 자세인 채이기 때문에 말발이 위태로운 것이다. 높은 정신의 모습이 허공에 뜬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sup>19)</sup>

라는 부분이다.

내레이터에 의해 포착된, 대국장을 벗어난 명인의 뒷모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조용한 애처로움’ 또는 ‘메이지시대 사람의 자취’에 비유된다. 내레이터인 우라카미는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이 두어진 시기인 쇼와시대와 메이지시대를 대비시켜 생각하고 있는 것이리라. 쇼와시대가 합리주의의 시기라고 한다면, 메이지시대는 예도의 아취가 살아 있고, 연장자를 경모하며, 서로 간의 인격이 존중되던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명인의 뒷모습에 우라카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우라카미는 그러한 메이지시대의 일면을 동경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슈사이 명인의 뒷모습은 또한 ‘높은 정신의 모습이 허공에 떠 있는 것’과 같다고 묘사된다. 이것은 아직 ‘바둑 삼매경에서 깨어나지 못해서’인데 이는 슈사이 명인이 바둑 삼매경에 빠져 높은 정신적 고양(高揚)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내레이터가 느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레이터는 메이지시대 사람의 자

취를 느끼게끔 하는 슈사이 명인에게서 정신적 향취까지를 느끼고 있다. 내레이터는 슈사이 명인을, 일본의 전통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 깊이 있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根底)에는 내레이터 우라카미의 일본 바둑에 대한 바둑관이 자리하고 있다. 다음 『명인』의 제28장 부분을 보기로 하자.

일본의 바둑은 플레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하는 관념을 넘어서 예도(藝道)로 여겨지고 있다. 동양 고래의 신비와 고풍(高風)이 흐르고 있다. (중략) 전통이라고 하면, 바둑도 또한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바둑의 예(芸)는 일본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바둑이 높아지고 깊어진 것은 일본인에 의해서였다. 단지 그것은 에도막부(江戸幕府)가 보호를 하기 시작한 뒤로 근세(近世)의 일이다. 바둑은 천년도 전에 전래되었던 것이니까 오랜 시대, 일본의 바둑의 지해도 자라나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선심(仙心)의 놀이라고 여겨지고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하고, 361로(路)에 천지자연(天地自然)이며 인생의 이법(理法)을 포함한다고 하는 그 지혜의 심부(深部)를 지금도 계속 빛내고 있는 것은 일본이리라.<sup>20)</sup>

이 대목은 명인의 병으로 은퇴 바둑이 중단된 날, 내레이터인 우라카미가 자신의 자택인 가루이자와(輕井沢)로 향하는 기차 속에서 바둑을 둘 줄 아는 한 서양인과 휴대용 자석 바둑판으로 대국하면서 느낀 술회가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작품 『명인』에서 일본의 바둑에 대한 내레이터의 생각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대목에는 우선 바둑의 본질을, 플레이 또는 게임으로 보는 시각과 예도로 보는 시각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 위에서 일본의 바둑은 예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내레이터에 의하면 일본의 바둑은 예도이며, 동양 정신의 심오함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둑이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 하나 그 심오한 정신성은 중국에서는 상실된 반면, 일본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둑이 ‘선심(仙心)의 놀이라고 여겨지고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하고, 361로(路)에 천지자연(天地自然)이며 인생의 이법(理法)을 포함한다’라는 시각은 반드시 일반적인 바둑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공자(孔子)는 “배불리 먹고 종일토록 마음을 쓸 곳이 없으면 딱한 일이다. 장기와 바둑을 두는 일이 있지 아니하나?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sup>21)</sup>고 하였으며 맹자는 “바둑의 기예는 하찮은

18) 川端康成 『名人』, p.486

19) 川端康成 『名人』, p.487

20) 川端康成 『名人』, p.524

21) 『論語』陽貨第十七, 朱熹著, 韓相甲 譯 『三省版 世界史上全集 1 論語·中庸 四書集註 I』, 三省出版社, 1982, p.327

기에이지만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뜻을 극진히 하지 아니하면 그 기예를 배우지 못할 것이다”<sup>22)</sup>고 하였다. 공자와 맹자는 바둑을 ‘놀이’ 내지는 ‘작은 기예’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공자는 무위도식하느니보다는 바둑이라도 두는 것이 그래도 낫다는 것이며 맹자는 바둑 같은 하찮은 기예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해 배우지 않는다면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으로 배사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성취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와 맹자의 이러한 바둑관은 『명인』 제28장의 상기 인용의 ‘플레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하는 관념’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둑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본의 바둑의 경우는 이러한 관념을 넘어서 예도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내레이터의 일본 바둑에 대한 평가이다. 이 평가에는 일본 바둑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일본의 바둑이 에도시대에 막부의 보호를 받으면서부터 발전되어 예도의 품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에도시대에 혼인보가(本因坊家), 이노우에가(井上家), 야스이가(安井家), 하야시가(林家)라는 바둑 4대 명문이 성립하여 이들 가문이 명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가운데 일본의 바둑이 발전하였다는 점, 특히 이들 바둑 4대 명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업적을 남긴 것은 바둑최고수 명인을 5명 배출한 혼인보가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내레이터는 이런 일본의 바둑사를 염두에 두고 슈사이 명인을 바라보고 있음에 틀림없다. 일본 바둑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예도로 자리잡게 된 에도시대에 그 바둑 발전의 중심에 있던 혼인보가를 계승한 제21세 혼인보 슈사이 명인은 내레이터에게 있어 어디까지나 예도의 구현자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명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슈사이 명인은 바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 바둑관의 일단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제38장에 나온다. 그것은 오타케 7단의 봉수(封手) 후 121에 대한 슈사이 명인의 반응이다. 후121의 수에 대하여 슈사이 명인은 “이 바둑도 끝입니다. 오타케씨의 봉수로 망쳐 버렸어요. 모처럼 그리던 그림에 먹칠을 한 것과 다름 없습시다”<sup>23)</sup>, “그 수를 보았을 때 나는 그만 던져 버릴까 하고 생각했어요”<sup>24)</sup> 라고 오전 대국이 끝난 뒤 점심시간에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다.

이 후 121의 봉수에 대한 반응은 슈사이 명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슈사이 명인은 후121의 봉수가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 은퇴 바둑의 관전기 해설자인 우칭위안 6단은 후121의 수가 지금이 두어질 타이밍이었다고 해설하였고, 슈사이 명인 또한 후일 그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한 대목에는 명확히 바둑을 예술로 간주하는 슈사이 명인의 바둑관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작품 중에도 내레이터에 의해 “명인은 이 바둑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왔다. 그 감흥이 고조되어 긴박한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그림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먹칠을 당했다”<sup>25)</sup>라고 기술되어 있다. 자신의 은퇴 바둑을 애써 그리던 그림에 비유하는 슈사이 명인은 자신이 오타케 7단과 함께 예술작품을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대국에 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이 명인과 오타케 7단 모두에게 일생일대의 승부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관전기자인 내레이터 우라카미는 결코 이 바둑을 승부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 이상으로 내레이터에게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바둑이 예도와 통한다는 관점이다. 그리고, 그 관점에 입각하여 내레이터는 슈사이 명인을 예도의 구현자로 경모(敬慕)하는 것이다.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은 명인의 백 130이 패착(敗着)이 되어 후 5집승으로 끝난다. 이 결과는 슈사이 명인의 50년 불패의 신화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었다. 그런데, 작품 『명인』은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의 결과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은퇴 바둑이 끝난 후의 슈사이 명인과의 재회와 그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오타케 7단과 우칭위안 6단의 대국이 기획되어 슈사이 명인이 그 해설자가 되었던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다음 제45장의 부분을 보기로 하자.

명인이라는 높은 지위에서 강평(講評)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은퇴 바둑에 저서 이제 승부 바둑을 둘 수 없다며 현역을 물러난 사람이니 명인의 여광(余光)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서운했고 젊은 스타들의 대국(對局)의 옆에서 명인을 보는 것이 괴롭게 느껴졌다.<sup>26)</sup>

오타케 7단과 우칭위안 6단의 대국에 명인이 해설을 담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내레이터의 감상이다. 명인이 오타케 7단에게 패하고 은퇴한 뒤의 바둑의 주역은 오타케 7단과 우칭위안 6단이 되었다. 에도시대에서부터 이어진 혼인보가의 마지막 혼인보가 퇴장한 바둑계는 어느덧 오타케 7단, 우칭위안 6단으로

22) 『孟子』告子章句上, 朱熹著, 韓相甲 譯 『三省版 世界史上全集 2 孟子·大學 四書集註Ⅱ』, 三省出版社, 1982, p.297

23) 川端康成 『名人』, p.555

24) 川端康成 『名人』, p.555

25) 川端康成 『名人』, p.556

26) 川端康成 『名人』, p.582

대표되는 새로운 바둑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었다. 내레이터는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지켜보며 이제 예도의 구현자로서의 명인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는 서글픔을 느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품 『명인』은 등장인물 슈사이 명인과 오타케 7단의 대국을 통해 전통적인 일본의 바둑을 예도로 그려내고 있고 또한 슈사이 명인의 은퇴 이후의 새로운 바둑의 흐름을 아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 5. 결론

이상,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명인』을 바둑문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명인』의 소재가 된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이 가지는 바둑사적 의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일본 혼인보가의 마지막 혼인보였던 슈사이 명인의 은퇴 바둑은 에도시대 이래의 바둑 질서가 현대바둑의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시기의 기념비적 바둑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작품의 바탕에 깔려 있는 바둑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고찰의 결과, 내레이터는 에도시대 이래의 일본 바둑을 예도(藝道)로 보고 있으며, 슈사이 명인을 바로 그런 예도의 구현자로 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명인』은 일본의 바둑 전통에 대한 예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일본의 바둑이 깊은 정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서서 일본의 전통 미학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여겨진다. 소설 『명인』을 통해서도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일본의 전통적인 미학을 추구하고 표현하고자 한 작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参考文献】

- 『論語』陽貨第十七, 朱熹著, 韓相甲 譯『三省版 世界史上全集 1 論語·中庸 四書集註 I』, 三省出版社, 1982, p.327
- 『孟子』告子章句上, 朱熹著, 韓相甲 譯『三省版 世界史上全集 2 孟子·大學 四書集註 II』, 三省出版社, 1982, p.297
- 大久保喬樹『川端康成-美しい日本の私-』, ミネルヴァ書房, 2004, pp.131-132
- 川端康成『名人』『川端康成全集第十一卷』, 新潮社, 1984, pp.443-591
- 菊池達也『木谷実とその時代』, pp.22-24
- 『東京日日新聞』1938年6月24日
- 長谷川泉「川端文学における『名人』」, 川端文学研究会編『川端康成研究叢書7 鎮魂の哀歌-叙情歌・住吉三部作・名人-』, 教育出版センター, 1980, p.144
- 藤井了諦「『名人』-作者の狙いと文体-」, 川端文学研究会編著『川端康成の人間と芸術』, 教育出版センター, 1974, pp.126-152
- 山本健吉「解説」川端康成『名人』, 新潮文庫, 1962, p.172



## 要 旨

川端康成의 『名人』는, 秀哉名人의 引退碁를 素材に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従来の先行研究においては、この作品は 囲碁文化と関連してはあまり研究されていない。本稿はこのような先行研究の現状を克服するため、川端康成の 『名人』を 囲碁文化との関連を中心に考察した。

まず、『名人』の素材になった秀哉名人の引退碁のもつ囲碁史的意義について分析した。分析をとおして、日本の本因坊家の最後の本因坊である秀哉名人の引退碁は江戸時代以来の囲碁の秩序が現代囲碁の新しい秩序へと再編される時期の記念碑的対局であったことがわかった。また、この作品の基底にある囲碁観について考察した。考察の結果、語り手は江戸時代以来の日本の囲碁を芸道と見なしており、秀哉名人を芸道の実践者と見なしていることが把握できた。

『名人』は日本の囲碁の伝統への礼賛の記であると言える。この作品は、日本の囲碁が深い精神性をもっているという立場に基づいて日本の伝統の美学を表現した作品なのである。小説『名人』をとおしても、川端康成は日本の伝統的な美学を追求し、表現しようとした作家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

キーワード：秀哉名人、本因坊、新布石、囲碁文化、囲碁観、芸道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